

# '1% 밀 자급률' 높인다...생산단지 광주 2곳·전남 24곳 선정

### 전국 74곳...광주·전남 밀 재배면적 2799ha·전국 2위 규모 농식품부, 정부보급종 50% 할인·비축 우선 매입 등 지원

정부가 1%에 불과한 밀 자급률을 오는 2025년까지 5%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농가는 생산시설 확충과 지원사업 제도 내실화가 먼저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전국 밀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2035ha(32.7%) 증가한 8259ha으로, 정부가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운 지난 2020년부터 3년 평균 1500ha가 증가해왔다. 하지만 2025년 목표 면적 3만ha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주 2곳과 전남 24곳 등 내년 국산 밀 전문 생산단지 74곳을 최종 선정해 최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생산단지의 지역별 면적은 전북이 3538ha로 전체의 48.8%를 차지해 가장 컸다. 이어 전남(2275ha)과 광주(524ha)가 뒤를 이었다. 전국 생산단지별 평균 재배면적은 98ha이다.

광주에서는 광주우리밀영농조합법인과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등 2곳이 4년 연속 전문 생산단지에 포함됐다.

전남 생산단지는 10곳(2020년)→16곳(2021년)→18곳(2022년) 등으로 증가해왔고, 이번에는 청도유동영농조합법인(장흥), 상원영농조합법인(진도), 미래식량산업영농조합법인(진도), 황룡위탁영농조합회사(장성), 굴비골농협(영광),

다시농협(나주) 등 6곳이 추가되면서 24곳으로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이들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영농을 위한 교육, 밀 정부보급종 종자 할인 공급, 정부 비축 우선 매입, 밀 생산 시설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달 중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을 받아 내달까지 일반 가격의 반값에 공급한다. 공급 품종은 새금강, 금강, 백강, 조경 등 4종이다.

밀 건조·저장을 위한 시설과 장비 지원사업의 경우 이달 말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받아 10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정부는 2020년부터 밀 자급률을 높이고 국산 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밀 전문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세운 '제1차(2021-2025)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 0.8%에 불과한 밀 자급률을 오는 2025년까지는 5.0%, 2030년

은 1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밀 전문 생산단지를 늘려 오는 2025년까지 밀 재배면적 3만ha(생산량 12만t)를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 밀 500t을 생산한 안선권(50) 장흥 햇살농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정남진우리밀생산자협의 회장)는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했지만 정부의 우리밀 수매가는 40kg당 3만9000원(친환경 밀 4만2000원)에 멈춰있다"며 "현재 1%에도 미치지 않는 밀 자급률을 오는 2025년까지 5%로 끌어올리는 게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밀 2t당 10만원의 건조비용을 들고고도 재건을 위해 4만원을 더 쓸 정도로 밀 보관시설 등 산업 기반이 열악하다"며 "식품업체에 납품할 수 있는 밀을 생산하기 위한 가공·보관시설 현대화가 절실하다. 생산 장려금과 출하 장려금과 같은 직불금 제도 현실화로 밀 농가 소득을 보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기준 지역 밀(조곡) 생산량은 광주

1537t·전남 5773t 등 7310t으로, 전체(1만6985t)의 43.0%를 차지한다. 전년 생산량 7589t(광주 534t·전남 7055t)보다는 3.7%(-279t) 감소했다.

올해 밀 재배면적은 광주 832ha·전남 3277ha 등 4169ha로, 전년(3259ha)보다 27.9%(910ha) 증가했다. 재배면적은 늘었지만 전국 면적에 대한 비중은 지난해 52.4%에서 올해 50.5%로 1.9%포인트 감소했다.

정부가 밀 산업 육성계획을 세운 이후 전국 밀 재배면적은 지난 2019년 3736ha에서 2020년 5224ha, 2021년 6224ha, 올해 8259ha 등으로 증가해왔다. 최근 3년 평균 증가 면적은 1508ha로, 정부의 2025년 목표 면적 3만ha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편 광주는 지난해 처음 경남을 제치고 17개 시도 가운데 재배면적 3위를 2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전남 쌀 대표브랜드 '풍광수토' 부산·제주 집중 공략

### 농협 전남본부, 홍보·사은행사

지난달 말 산지 쌀값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8월18일 '쌀의 날'을 앞두고 부산과 제주지역 판촉전을 벌이며 전남 쌀의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7일 통계청 산지 쌀값 조사 결과에 따르면 80kg 쌀(정곡) 한 가마니 가격은 지난달 25일 기준 17만5672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22만3424원)보다 21.4%(-4만7752원) 하락했다.

전달(18만860원)보다는 2.9%(-5188원) 떨어진 가격이다.

쌀 80kg 한 가마니 값 18만원대가 무너진 건 4년 만이다.

지난달 말 쌀값은 지난 2018년 6월(17만4920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달 초 전남 쌀 재고는 10만t으로, 지난해보다 188% 폭증했다. 전국 재고에서는 25% 비중을 차지한다.



전남농협 관계자가 지난 5일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전남 쌀 '풍광수토' 구매 고객에게 쌀 500g을 추가 증정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전남농협은 전남도와 함께 '풍광수토' (10kg) 2만포대를 부산·제주도 대형마트 40여 개 매장에 공급하고 고객 사은행사도 했다. 판촉전에는 부산 공급업체 서인인터네셔널과 제주 좋은쌀유통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10kg 1포대 구매 고객에게 쌀 500g을 사은품으로 증정했다.

풍광수토 브랜드 누적 매출액은 부산·경상권 50억원(2043t), 제주도 122억원(5255t)으로 2017년 풍광수토 새 단장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쌀 공급과잉 기조 속에서 쌀 소비량 감소와 재고보유 과다, 수입쌀 방출로 쌀 산업은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전남농협은 쌀 소비확대를 위해 홍보·마케팅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월18일은 '쌀의 날'로 불린다. 쌀 미(米)를 나뉘 쓰면 八(8), 十(10), 八(8)이 되는데,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선 농부의 손길이 여든여덟 번 필요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평동농협, 로컬푸드 출하 농가 영농자재 지원

### 131가구에 1650만원 상당

광주 평동농협은 최근 로컬푸드(직거래 농산물) 출하 농가에 영농자재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평동농협이 광산구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약정 농가 131가구에 전달한 영농자재는 총 1650만원 상당이다.

이번 전달은 로컬푸드 생산을 확대하고 농산물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6년 9월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은 개장 첫해 매출 23억9300만원, 지난해는 90억9800만원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5년 새 280%가량 성장한 규모다.

김익찬 조합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장세는 고품질 농산물을 출하하는 지역 농가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과 함께 지역사회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어촌공사,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협약

### 연간 2억원 인센티브 수입 예상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태양광발전량을 예측해 통보하면서 ESG 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는 지난 4일 나주 본사에서 KT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중개 거래 실시협약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생 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는 말 그대로 다음 날 예상되는 발전량을 전날 예측해 전력거래소에 알려주는 것으로 KT의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한다.

예측량이 ±8% 이내면 일정 금액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 제도는 태양광 등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전력 거래 플랫폼에 수용해 국가 차원에서 전력 변동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10월 만들어진 제도다.

농어촌공사가 운영 중인 신재생 에너지 발

전소는 태양광 81곳(66MW), 소수력 43곳(23MW), 풍력 2곳(5MW) 등 모두 126곳에 발전용량은 94MW 규모다.

이번 발전량 예측제도에 동참한 곳은 시스템 부재로 제외된 수력과 풍력에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뺀 나머지 태양광 42곳(발전 용량 54MW)이 해당한다.

공사는 예측제도 참여로 연간 2억원의 인센티브를 예상하며, 이 수익금은 농업인의 영농편의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19년부터 직접 시행한 에너지 발전사업 수익 중 5%를 마을 공동 속원 사업 지원 등 재생 에너지 이익 공유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19개 마을 발전소에서 연간 1250MWh(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농기계, 비료 구매, 마을 경관 시설, LPG 공급 등 마을 속원사업으로 8억원을 지원했다.

박찬희 농어촌공사 그린에너지처장은 "발전량 예측제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정부 에너지 정책에 동참하고 발생한 수익금은 농업인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상무지구(상가매매)	당진(신축)원룸매매	경매교육【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p>1) 감정가 (시세) <b>9억</b> 매매가 <b>7억</b> (용 4억가)</p> <p>2) 월수익 <b>350만</b> (보 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p>	<p><b>월수익 750만</b> <b>연수익 9천만</b> <b>매매 14억5천</b> (용7억)</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릴 10년간 임대걱정 없음.</p> <p>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엘지정유,입주및공사시작</p> <p>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p>	<p>1) 특수반모집 -&gt;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분)</p> <p>2) 전문반모집 -&gt;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p> <p>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gt; 평생 회원반</p>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gt; 최저가 3억6천 (7/14)</li> <li>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gt; 최저가 1억5천 (7/27)</li> <li>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gt; 최저가 3억 1천 (8/04)</li> <li>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gt; 최저가 3억5천 (8/03)</li> <li>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gt; 최저가 18억 (8/04)</li> <li>서구 치평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2천 -&gt; 최저가 3억5천 (8/3)</li> <li>동구 율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gt; 최저가4억5천 (5/26)</li> </ul> <p>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gt; 최저가 8천 (8/03)</li> <li>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gt; 최저가 3억7천 (8/3)</li> <li>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gt; 최저가 1억1천 (8/3)</li> <li>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gt; 최저가 3억3천 (8/3)</li> </ul> <p>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남 김해시(숙박시설)▶ 감정가28억 -&gt; 최저가 14억 (7/22)</li> <li>전남 영암군(근린시설)▶ 감정가 6억4천 -&gt; 최저가2억8천(7/19)</li> </ul>
<b>010-6670-9800 (062-382-5500)</b>		